불자 세상보기

종립대 신임 총장 취임에 부쳐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최근 동국대 · 금강대를 비롯해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새 총장을 맞았다.

2008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편람을 보면 종교계가 설립한 대학은 128개교이다. 이 가운데 불교계가 세운 종립대학은 원불교를 포함한 12개교이다. 불교 종립학교의 수가 이웃종교에 비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부처님 사상을 널리 펴고 모든 분들을 이롭게 하고자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그리 높지 않다. 우수한 수험생들이 종립대학을 선호하지 않고, 심지어 사회에서도 종립대학 졸업생들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처님 사상에서 지혜를 얻어 기업을 경영해 이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립학교 CEO는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의식이 있어야하고, 여기에 사무량심이 더해져야한다. 구성원들을 더 편안하게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에게 베푼 일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며 혹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대학의 최고책임자에게만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미운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함께 일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김구용 작가의 〈열국지〉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다.

제환공이 관중을 문병해 묻기를 "과인은 장차 이 나라 정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겠소? 포숙아는 어떻소?"라고 물었다. 관중은 "포숙아는 군자여서 정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선악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분명합니다. 선을 좋아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포숙아는 그 사람을 평생 미워합니다. 이점이 포숙아가 정사를 맡을 수 없는 결점입니다"라고 답했다. 포숙아에게 상대를 해량할 수 있는 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학의 최고책임자라면 상대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원융과 화쟁으로 함께 걸을 수 있어야한다. 더욱이 학교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대학운영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설한 승가법의 내용을 원용하면 대학발전의 초석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의 분야별 소임자를 위촉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민주적 행정 운영과 협동을 기본으로 원칙에 입각해 분야별 학덕이 수승한 교수를 초빙해 연구 · 교육케 해야 한다.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지도자는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다. CEO중심의 계파를 두지 않고, 사심과 편견 없이 인재를 등용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통을 계승하고, 전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 전통을 멸실시키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열국지〉에서 관중은 제환공에게 "역아, 초, 개방 세 사람을 가까이 말라"고 조언했다. 제환공은 관중에게 "역아는 환공이 입맛이 없을 때 제 자식을 삶아서 바쳤고, 초는 자기 몸보다 과인의 몸을 더 귀하게 여겼고, 개방은 천승의 나라까지 버리고 과인에게 와서 신하로 있는데 이들을 멀리해야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관중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나 역아는 제 자식을 죽였다. 그런 사람이 임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사람에게는 자기 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나 초는 자기 몸을 천하게 취급했으니 그런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설명했다. 또, 개방은 천승의 나라보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으니 이들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경고했다. 자식 사랑, 부모를 섬기는 효, 자존의 덕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주위에는 역아, 초, 개방처럼 본인의 목적만을 위해 처신하는 자를 쉽게 볼 수 있다. 불교계 종립대학 지도자의 보살과 같은 공심(公心)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불교계 종립대학이 거듭 발전하려면 모든 구성원의 중지를 결집해 한마음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교육의 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중한 고민 속에 하나하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다.

사부대중 칼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봄볕이 들기를



최수진
임용고시 준비생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연이어 계속되는 폭설과 한파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꽁꽁 얼어간 듯 했다. 추운 날씨 말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든 사건들이 여럿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건은 경기 양주 고교생들의 개 연쇄 도살사건이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나는 온 몸이 잔뜩 움츠러들며 경직되고 말았다. 학생들은 동물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여겨지는 개를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끔찍하고 슬플 따름이다.

나는 유별난 동물애호가도 아니고, 애완동물을 기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애완동물'을 다루는 방식에 거부감마저 갖고 있다. 어째서 사람이 동물을 일방적으로 예뻐하며 먹이고 입히며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이 불특정의 동물에게 거부감을 갖거나 그것들이 인간보다 작다거나 인간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 생김새나 소리 따위에 일방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월한 개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들은 저마다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각개의 종들은 서로 다른 진화의 과정과 속도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으로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소중함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들먹이며 결국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강한 것이 세상의 중심이자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을 해야만 한다. 당장 눈앞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이득과 순간의 기쁨을 위해 가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잊기도 한다. 개를 학대하고 죽인 고교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놀이삼아, 재미삼아 개들을 묶고 찌르고 심지어 개에게 불까지 붙였다고 한다. 단지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였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숨을 거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귀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생명이다. 불교에 귀의한 출 · 재가자 모두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범 중 첫째가 불살생(不殺生)이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명은 고귀한 것인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을 짓밟는 것이 옳은 일인지 굳이 물어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얼마 전 홍익대에서는 노조를 결성한 청소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뻔 했다. 그런데 부당해고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미화원들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홍대 학생회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한겨울 추운 길바닥에서 학교를 상대로 시위를 해야 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개를 학대한 고교생들과 본인들의 학습권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길 위에 나선 청소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던 홍대학생들의 모습이 뭐가 다른 것일까? 홍대학생들은 그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보다 자신들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희생과 고통을 당연히 감내하라는 잔인한 짓을 했다.

거창하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이고, 나 역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하다.

가혹한 추위는 이 정도면 충분히 겪었다. 이제 봄이 왔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가혹해지지 않기를 그들에게 따뜻한 볕이 들기를 바란다.

社說

신도 참여 기회 더 넓혀라

대중공사(大衆公事)는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이다.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중공사의 결정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갖는다.

조계종은 3월 12~19일 출가열반절 동안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신도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조계종은 신도 대중공사 기간 동안 매일 108배 정진을 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등의 법문도 예정됐다. 행사에서는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 결사에 대한 선언과 결의가 매일 같이 이어진다. 문화 · 나눔과 관련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계사 대중을 비롯한 중앙신도회 소속 신도조직 및 포교단체들의 참여도 약속됐다.

조계종의 의도대로라면 신도들은 8일간 계속되는 신도 대중공사를 통해 총무원이 주창하는 자성과 쇄신 5대 결사를 이해 · 실천할 것이다. 선언되는 대중실천지침에 따라 생활 속 정진 분위기도 고양될 것이다. 하지만 평일을 포함해 꼬박 1주일 넘게 진행될 행사에 얼마나 많은 대중이 참여할까? 이번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찰이 동참할 지도 의문이다.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다는 느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름 붙인 대로 이것이 대중공사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진정한 대중공사가 되려면 결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에, 적어도 실천지침만이라도 신도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개혁이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조계종의 이중플레이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어 간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이 운동으로 불교계는 대변혁의 기회를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 치적의 상징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이 한창인 낙동강 낙단보 등에서 1080배 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원로의원스님 등 종단 구성원들의 잇단 지지 성명이 나왔고, 전국 교구본사마다 결의대회가 열리는 등 무던히도 애써왔다.

한발 더 나아가 3월 3일 정부예산 신청을 금지하는 종무지침까지 내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이 4월 임기만료 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에 문화재 관련 비전문가인 종책특별보좌관 2인을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재 관련 예산을 신청 말라는 종무지침을 종도들에게 내리면서, 정작 총무원에서는 문화재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추천된 종책특별보좌관 스님들이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전적으로 옳을 수만은 없다. 한 스님은 중앙에서 종무 요직에 오랜 기간 활동했던 경력이 있고, 한 스님은 주지로서 사찰 · 문화재 복원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무원은 이번 논란을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지금 조계종에 필요한 것은 실리보다는 명분이다. 아직도 국민 다수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돼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시작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1.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 요잡(막바라), 화의재, 사다라니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욕)
◆ 사물 : 태징,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게,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다게작법, 법고춤, 운심게작법, 괘불이운. [강주 : 지효스님]
2. 개강일시 : 2011년 3월 2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051)442-1817 010-2554-5582 (총무국장)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